

제목: 큰 믿음

본문: 마태복음 15:21-28 절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Jesus went away from there, and withdrew into the district of Tyre and Sidon.**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And a Canaanite woman from that region came out and began to cry out, saying, "Have mercy on me, Lord, Son of David; my daughter is cruelly demon-possessed."**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But He did not answer her a word. And His disciples came and implored Him, saying, "Send her away, because she keeps shouting at us."**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But He answered and sai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But she came and began to bow down before Him, saying, "Lord, help me!"**

26.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And He answered and said, "It is not good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27.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But she said, "Yes, Lord; but even the dogs feed on the crumbs which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Then Jesus said to her, "O woman, your faith is great; it shall be done for you as you wish." And her daughter was healed at once.**

본문의 내용은

-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 가시니(21 절): 두로는 ‘바위’라는 뜻으로 시돈항구에서 약 40km 지점,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 약 24km 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고 시돈은 ‘노략물’이라는 뜻을 가진 항구도시로 두로와 같이 동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항구로 예루살렘에서는 두로보다 더 먼 곳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가나안 여자 하나가(22 절): 가나안은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지중해 지역의 위로부터는 두로와 시돈 윗 지역부터 사해바다 중반까지 요단강 서편땅 전지역을 지칭하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유다 지방이 아닌 모든 지역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원 밖에 있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주 다윗의 자손이여!”(22 절): 이 내용은 여리고 지역에서 소경 두 명이 예수님을 부를 때와(마태복음 20:31 절, 9:27 절) 같은 의미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태복음 16:16 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백의 내용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마태복음 1:1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22 절):** 귀신은 모두 영적인 세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창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기 위하여 실존하는 타락한 영적인 악한 영입니다. 주로 마귀와 사탄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편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리기 위하여 성도들을 실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하는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강조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 뿐 아니라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지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만 본문에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23 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청하여 말하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이 관심이 가질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간절히 간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이 부를 때는 “잠잠하라”고 호통했던 것에 반하여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혈통적인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내용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24 절):** 이 내용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있고 전도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25 절):** 이 내용이 구원을 위한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절하며”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전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온전히 예수님께 구하는 간절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26 절):**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를 설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녀의 떡”과 “개”에 대하여 주인의 관심과 구원의 관계 즉 한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인이 없는 들의 떠 돌아 다니는 개를 의미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 “개”의 의미는 들개가 아닌 주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인의 개를 즉 가족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주여! 뽕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27 절):**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고백한 이 여인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주여! 뽕소이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소유 개 즉 이방인들 중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은 큰 감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은 오직 큰 믿음 때문입니다.

-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28 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적인 것 즉 구원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중에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간절히 구원한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필요한 것을 공급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첫째,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22 절)

1.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16 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 소경 둘: 마가복음 10:48 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서서”
3. 병자의 아버지: 마가복음 9:24 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24 절)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4:20 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 천국 백성: 요한복음 17:24 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27 절)

1. 고린도전서 15: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2. 베드로전서 4:10 절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